

# 오피니언

##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김성열



이제 곧 새 학년도와 새 학기가 시작된다. 이 무렵이면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다닐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매우 궁금해 한다. 특히, 학교 선택권이 주어질 경우 학부모들은 마음에 드는 학교를 선택하고 자녀가 다닐 학교가 결정될 때까지 노심초사해 한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는 학부모들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지만, 원하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려고 이사를 하는 등 무리를 하기도 한다. 어떤 학교를 학부모들은 선호하는가? 학부모들이 마음에 들어 하는 학교는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학교, 기초학력 발달 학생이 없는 학교,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면서도 대학 진학에서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는 학교, 일반고 이면서도 특목고에 못지않게 대학진학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학교 등등일 것이다.

이렇게 학부모가 마음에 들어 할 학교들은 한마디로 좋은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좋은 학교라고 불리는 학교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여건이 비슷한 주변의 학교들과

비교할 때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에는 학생 및 학교의 특성, 지역 사회 여건, 가정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들 요인이 잘 어우러진다면

##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인가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는 분명 높아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학교 효과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듯이, 좋은 학교는 다른 요인(예 : 학생 특성, 가정환경, 지역적 특성 등)이 비수할 경우에, 학생들이 그 학교에 다니는 것이 다른 학교에 다니는 경우보다 높은 교육적 성취를 내고 있다.

학부모나 학생,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은 교육적 성취가 높은 좋은 학교에 대해 각각의 관점에서 다르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학부모들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부하는 습관과 기초적인 학력을 튼튼하게 길러주기를 기대하고, 그러한 기대에 학교가 부응하면 좋은 학교라고 여길 것이다.

학생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좋은 학교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를 중요시하면서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

또는 개발해 주려고 노력하는 학교다. 그들은 지적인 개발을 경시하면서 다른 것을 잘하게 하는 학교는 사실상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지적 공부를 소홀히 하는 학교들은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낮은 이유를 학생들을 전인적으로 교육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기도 한다.

이러한 학교를 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잠재적 능력이 좋은 학교의 교육을 통해 더욱더 개발되기 때문에 학교 이외의 교육에 덜 의존하게 되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좋은 학교는 국가적 수준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가 기대하는 교육목표의 달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

하지만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명감을 갖고 다함께 뜻을 모아 '좋은 학교 만들기'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경남대 부총장)

그러나 지적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전인교육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전인이란 지·덕·체가 균형있게 발달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좋은 학교는 지적인 교육을 기본으로 하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의 충족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학교들이다.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좋은 학교는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학생들의 교육에 헌신할 수 있는 학교이다. 선생님들은 전 시성 행사를 하는 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 학생들의 교육을 함께 의논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학교, 학생들과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가르침의 결과가 학업성취도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학교를 좋아한다. 선생님들은 이런 학교에서 학생들과 인격적 교감을 하며, 최선으로 그들을 돌보려고 애쓰면서 머물고 싶고 근무하고 싶어한다.

좋은 학교는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 수준을 높일 수 있고, 가정 배경 등에 따른 학생들 간 학업성취의 차이를 줄여주기 때문이다. 비록 가정이 어려워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여도 학생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학교를 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잠재적 능력이 좋은 학교의 교육을 통해 더욱더 개발되기 때문에 학교 이외의 교육에 덜 의존하게 되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좋은 학교는 국가적 수준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가 기대하는 교육목표의 달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

하지만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명감을 갖고 다함께 뜻을 모아 '좋은 학교 만들기'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경남대 부총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민주 '공천 킬' 부작용 차단 대책 있어야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 후보자 공천 경선과 관련해 '동원 선거', '돈 선거'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이 후보 공천을 위한 국민경선에 선거인단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를 도입함에 따라 각 후보 캠프가 동원능력이 승패를 가른다는 판단 아래 치열한 선거인단 확보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민주당의 공천틀이 확정된 이후 각 후보 캠프는 중간 조직관리자와 일선 선거운동원에게 선거인단 모집 목표를 할당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유권자 규모에 따라 3만~5만 명을 목표로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국민경선 공천틀을 확정할 때부터 예견됐었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조직을 활용한 '동원 선거'와 그에 따른 '돈 선거'의 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모바일투표의 경우 농촌지역 노인들의 선거 참여 어려움 등 실효성 차원의 문제가 제기된 게 사

실이다. 일부 농촌지역 예비후보들이 100% 여론조사로 뽑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우리가 현실로 드러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동원 선거 논란이 일고 있는 가하면 선거인단 모집에 돈이 오겠다는 소문과 명부 거래설도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각 후보들이 경선 통과를 위한 선거인단 모집에 올인하다 보니 지역발전 공약개발이나 후보의 인물됨을 알리는 선거운동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국민경선 도입은 중앙당의 하향식 공천이나 '돈 공천'이라는 그동안의 악습을 끊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공천혁명'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그런데도 이런 맹점을 그대로 둔다면 불·탈법으로 얼룩져 지도부 스스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은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의 불법 차단은 물론 경선 운영관리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 공천쇄신 취지를 심본 살려야 할 것이다.

### 제2순환로 통행료 인상만이 능사 아니다

광주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제2순환도로 민간 구간 통행료를 구간별로 소형차는 200원, 중형 300~800원, 대형은 400~10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시에 따르면 1구간의 섬유질과 비타민B가 많은 현미나 잡곡이 탈모증과 대사성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동물성 기름이나 육류보다는 식물성 기름이나 등푸른 생선이 불포화지방산이 많아서 좋다. 그 이외에도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는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 그리고 해조류 등이 있다.

따라서 소형차 요금은 1구간(두암IC~지원IC·14.23km)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3-1구간(효력IC~포양지구·3.53km)과 4구간(서창IC~산월IC·4.5km)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각각 조정될 전망이다.

이번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것이라고 하지만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올해 광주시가 98억 원의 재정보전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매년 200억 원 이상의 적자보전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통행료 인상이 능사 아니라는 게 우리의 판

단이다. 광주시가 민간 사업자와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불공정계약까지 하면서 재정보전금을 이용자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시는 지난 2007년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겠다고 법석을 떨었고, 지난해 초에는 사업자에게 '최소수익보장'을 인허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취소 검토라는 강경책을 제시했음에도 그 결과는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광주시는 통행료 인상에 집착할 게 아니라 사업자와 재협의를 통해 수익보장률을 낮추는 게 급선무다. 지난 1997년 양측이 협약할 당시 은행 금리가 10%대인 점을 감안하면 적자보전금을 현재의 금리 수준이 3~4%대로 낮춰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조정이 안 된다면 관리운영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시민의 혈세를 밀 박힌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난비할 수는 없지 않는가.

## 無等鼓

다산은 '신아구방(新我舊邦·묵은 우리나라를 새롭게 함)'이라고 해 국가의 전면적 개혁을 꿈꿨다. 그의 이상적 지도자상은 개혁을 제대로 해 낼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 기반엔 '위국애민(僞國愛民)'이 있었다.

특히 올바른 지도자라면 인재를 제대로 키울 수 있어야 하고 관리의 대응과 업적을 엄격히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사람을 등용하는 일이 공정하지 못하면 민심이 떠날 것이라고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MB특재' 시대로 일컫고 있는 이시대에 MB의 잘못을 일일이 꼽기 어려울 지경이다. 하지만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인사를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 MB의 가장 큰 잘못이다. 임기 초 '고소영'부터 시작된 인사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다.

이 대통령이 총애하는 사람만 싸고 실수한 자를 봐주면 더 큰 실수를 하게 된다. 무엇보다 권력 주변에 나쁜 메시지를 전달한다. '저 정도는 봐주는구나' 하는 도덕적 불감증과 호가호위하는 자

들이 생기게 된다. MB는 지금까지도 자신을 위한 인사를 했다. 편하게 쓸 사람을 고르고 보호해왔다. 그 인사 때문에 '불통 대통령', '불통 정권' 이미지가 굳어졌고 레이더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이처럼 인사는 조직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을 등용했을 때 구성원들의 마음은 떠난다.

상사를 무시하고 조직의 규율 따위는 안중에 없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상대를 음해하고 평가하기를 일삼는 사람이 등용되면 그 조직은 이미 죽은 것이다.

역대 정권과 비교해 MB만 잘못된 대통령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MB는 인사라는 조직관리

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화를 자초했다.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들은 어떤 사람을 등용할 지를 심사숙고 하고, 조직원들의 마음을 살펴 적기에 단행해야 한다. 조직관리에 가장 우선하는 것은 '인사(人事)는 만사(萬事)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재호 경제부 차장 lion@kwangju.co.kr

## 人事는 萬事



## 의로 칼럼



정진욱

아득한 옛날부터 유럽의 시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여성의 머리카락을 찬미해 그 매혹을 노래했다. 긴 생머리에 찰랑거리는 머릿결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들의 로망으로 여겨져 있다. 생머리 여인에 대한 동경은 어쩌면 여자보다 남자가 클지도 모른다.

하지만, 짧은 나이에 머리카락이 가늘어져서 없어지고 머릿술이 적어지면, 실제 헤어에 비해 늘어보이고 심한 경우는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사람의 머리카락은 피부 밖으로 올라온 후 3~5년 정도 자라며, 오래된 머리카락은

빠지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자라나는 순환, 즉 모발주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매일 일정한 머리카락이 빠지지만, 빠진 만큼의 모발이 새로 올라오기 때문에 항상 같은 양의 모발을 유지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모발은 한 달에 1~1.5cm씩 성장한다. 만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자연 그대로 기른다면, 수학적으로는 3~5년간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60~90cm까지는 기를 수 있다.

집안에 탈모가 있는 경우는 유전적인 남성형 탈모증이나 여성형 탈모증이 발생하기 쉬워진다. 유전성 탈모증은 유전과 남성호르몬이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남성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한 사춘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남성의 경우는 이마가 넓어지거나 정수리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없어지는 과정을 겪으며, 여성의 경우는 정수리 부위의 모발이 힘

이 없어지고 술이 적어지는 변화가 나타난다. 탈모증이 진행되면 얼굴의 윤곽이 약해지거나 변형이 오고 실제보다 늘어보이기도 한다.

최근 들어 20대 젊은이들 중에서도 남성형 탈모증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최근 10여년 사이에 남성형 탈모증이 많아지고 있으며, 심한 탈모증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탈모증 증가의 주원인은 서구화된 생활습관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2차 세계 대전 이전에는 남성형 탈모증이 드물었으며, 심한 경우도 별로 없었다. 하지만, 1945년 전쟁 이후 탈모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육식 위주로의 생활습관 변화이다. 과거 곡물과 채소 생선을 주로 먹고 살았던 일본인들이 미국에서 전해온 햄버거나 피자 등의 기름기 많은 음식과 패스트푸드로 알려진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

가 늘면서 탈모증 발생이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식생활의 개선으로 탈모증은 물론 성인병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백미보다는 섬유질과 비타민B가 많은 현미나 잡곡이 탈모증과 대사성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동물성 기름이나 육류보다는 식물성 기름이나 등푸른 생선이 불포화지방산이 많아서 좋다. 그 이외에도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는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 그리고 해조류 등이 있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와 시지도 대머리였다고 한다. 그들도 탈모증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동물과 식물 기름을 발랐지만, 빠지는 모발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제 탈모증은 여러 가지 치료법의 개발로 치료 가능해졌다. 탈모증이 심하지 않은 상태로 의외로 변화가 없는 경우는 먹는 발모제나 바르는 발모제로 탈모증의 진행을 90% 이상 막을 수 있다. 탈모증이 심해서 의외로 변한 경우는 자기의 모발을 이용해 탈모 된 부위에 옮겨 심어주는 자가 모발이식수술이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더모 헤어플랜트 모발이식센터 원장)

## 기고



유순남

최근 동급 학생들의 폭행에 시달리다 피해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연달아 불거진 후 여기저기서 토론과 여론들이 들끓자 결국 지난 6일 김홍식 국무총리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라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첫 번째 핵심은 교권 강화로 피해학생의 즉각 출석정지조치, 징계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고 한다. 또 선생님들이 학과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수담임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학교나 교원평가에 학교폭력 조치실적을 반영하고, 은폐

하면 징계한다고 한다. 두 번째는 가해학생에게는 재활프로그램을, 가해 학부모에게는 특별교육을 시키며, 시 군 구 단위의 '학교폭력지역사회대책협의회'를 신설하여 시도 단위의 'one-stop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도록 하고, '일진경보제' 도입으로 경찰을 개입시켜 발본색원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이 과연 교권을 강화하는 대책이 되는지 혹 교사가 교과부의 인간 로봇이나 지식의 파는 직업인으로 전락하지 않을지 걱정이다.

또 그렇게 해서 폭력성이 잠시 표출하지 못하고 잠재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회에 나가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지하철 막팔러, 부모 때리는 패륜아, 노부모 버리는 불효자 식들이 양산되지 않게끔 교육 환경이 개선되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꿈과 낭

만이 있는 즐겁고 아름다운 공간이던 학교가 점점 더 무서운 공간으로 변하지는 않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담화문 말미에 "체육 예술교육과 독서활동 교육을 대폭 늘려가고,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해 모든 교육활동에 인성교육을 핵심기치로 두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교권을 강화한다는 것이 고작 출석정지조치와 생활기록부 기재라는 것으로 보아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 우선 급한 불만 끄고 중요한 일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차제에 교육 방향과 사회 전반적인 교육환경을 바꾸어야 한다.

흔히들 욕심을 버려야 행복해진다고 한

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국가가 경제선진국에만 매달리지 말고 건전한 가치관을 지향할 때 국민개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 천천히 가고 조금 덜 가지더라도 국민의 가슴에 양심과 도덕이 살아있고 나와 이웃이 남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아이들과 어른들을 교육해야 한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그 누구보다도 담임교사가 해야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 이내로 줄여야 한다. 그래야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줄 수 있다. 또 반에서 서너 명이면 수업부적응이나 폭력적인 아이들이 한두 명으로 줄면 자연히 그 힘을 잃게 된다. 다음으로는 계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 정신적인 구성원이 되는 철학 교육도 꼭 필요하다. 직·간접적인 체험학습과 토론을 통해서 건전한 가치관을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필가)

로 제한된 의료장비를 가지고 수많은 환자를 돌보는 응급실 담당의사로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가까스로 그 보호자를 달래고 난 뒤 그 아홉마를 서둘러 치료하기는 했는데 정말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의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잦다는 말이 실감나 갔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호자의 다양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존각을 다루는 생명이 한물만 말인가. 더구나 그런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협박하는 듯한 언행으로 공포분위기를 만드는 일은 강력히 처벌해서라도 응급실 안전환 공간이 되도록 해야겠다.

▲김석원·광주시 광산구 안창동

### 다른 환자 생각 않고 응급실 의사 협박해서야

며칠 전 주말 놀이터에서 축구를 하던 아이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다른 아이와 부딪혔다. 상대 아이는 차이를 삼하게 다쳤고 우리 아이는 그 차이에 이마를 찌려 상처가 깊게 났다.

우리 아이는 다른데도 아닌 머리 부분에서 피가 줄줄 흘렀고 친구 아이 역시 영구치인 앞니에 문제가 생기면 안될 것 같아 그쪽 부모님이 오기 전에 서둘러 병원으로 데려간 것이다.

아이들 둘을 응급실로 데려가 접수할 시킨 후 앉아 있었는데 웬 아주머니를 들쳐 멘 젊은 남자가 응급실로 막 들어왔다. 아주머니를 살피며 담당자가 의사에게 보고하고 의사가 와서 보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했다.

일단은 응급실에 온 환자들의 순서가 있고, 담당 의사가 판단하기에 아주 급박한 상황은 아닌 듯 해서 그렇게 조치한 듯했다. 우리도 그보다는 먼저 왔으니 순서를 기다리며 응급실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던 중이

었다.

그런데 이 아줌마를 업고 들어온 남자가 잠깐 기다리라는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이 \* \* \* 이라며 욕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기다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소리를 질렀다. 응급실 전체가 찌렁찌렁 울었다.

담화한 의사가 "다른 환자도 있고 순서도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환자본은 순서에 맞게 기다려도 되는 정도다"며 상황 설명을 하자 그 남자는 또다시 "당신이 환자 죽으면 책임질 거야?"라며 다시 거칠게 항의했다.

정말 몇만 분의 1의 확률로 환자가 응급실에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한정된 인원이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제111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외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